

主婦가 知覺한 時間制約과 家事勞動의 遂行方案

Time Pressure Perceived by Housewife and Housework Performance Strategy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李昇美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ung Mi Lee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李基榮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Ki Young Lee

目 次

I. 問題의 提起	3. 資料의 分析方法
II. 理論的 考察	V. 結果 및 解釋
1. 主婦의 就業에 따른 時間制約 知覺	1. 就業與否 및 職業地位에 따른 時間制約 知覺程度
2. 家事勞動의 遂行方案	2. 主婦의 就業與否 및 職業地位에 따른 家事勞動 遂行方案의 差異
III. 研究問題의 設定	VI. 結 論
IV. 研究方法 및 節次	참고문헌
1. 尺度의 構成	
2. 調査對象 및 資料蒐集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

- 1) Differences of perceived time pressure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us of housewife.
- 2) The differences of housework performance strategy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us of housewife.
- 3)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time pressure and housework performance strategy.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375 women living in Seoul, the age of youngest child is at least school age. They were composed of non employed housewives, employed professional housewives and employed non professional housewives. Survery methods were questionnaire and interview. Data analysis strategy were percentile, frequency, one-way ANOVA, scheffé test and MCA.

The major findings were :

1) Perceived time pressure and two sub areas, psychological time pressure and time pressure according to the part of housework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us of housewife. The independent influence of employment status of housewives was most powerful in regression analysis.

2) Housework performance strategy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us of housewife. The strategies were divisions of housework among family members, use of convenience goods, services, appliance, paid help, adjustment of housework performance standard, reduction of leisure and sleep time.

I. 問題의 提起

각 가정은 가족원들을 위한 개별적이고 私人的 공간으로서, 개별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은 나름의 自律性과 個性을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구조적 맥락속에서 가정생활 방식이 규정받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의 하나인 여성취업의 증가,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사회구조의 변화중 가정내 家事勞動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원의 사회적 생산활동에의 참여라는 점에서 가정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혼여성의 취업증가 현상은 資本主義 경제체제의 가정과 일터의 분리에 따른 가정내 생산활동 규모의 축소,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勞動力 수요의 증가,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의 증대, 기술발전에 따른 가정생활 양식의 변화, 여성의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내면에는 家父長的 체제의 性別分業 관념이 여전히 남녀의 역할을 결정짓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家事勞動의 일차적 책임과 수행은 지속적으로 주부에 의해 담당되고 있다. 또한 근대산업과 기술발전에 따라 가사노동의 수행양식이 변화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단지 절대적인 노동력을 요구하던 可視的 노동으로부터, 노동력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非可視的 노동으로의 外形上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사노동의 代

替可能性의 한계와 보존 불가능성(서창원 1983), 새로운 아동관의 정립에 따른 자녀양육 부문의 강화(김해경 1985), 개별적 욕구충족과 기대의 증가 및 개성의 추구 등 생활표준의 상승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의 기혼여성의 취업은 취업주부에게 가정 밖의 生産勞動과 가정내 家事勞動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갖게 하며 이로 인해 많은 時間制約을 초래한다. 이것은 가정일과 직장일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시간적 제약이 취업주부의 직업활동의 가장 큰 애로점을 밝힌 연구(김은주 1979)와 주부의 취업시간이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가장 큰 制約要因임을 밝힌 여러 연구(Hafstrom & Shram 1983; Nickols & Metzen 1978; Walker & Woods 1976)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취업으로 인한 과중한 역할부담과 이로 인한 시간제약이 취업주부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부가 느끼는 時間制約은 주부자신의 생활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시간제약으로 인한 가사노동의 量的 감소와 質的 저하는 가족원의 福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 가정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취업주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별가정내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그들은 이러한 시간제약을 해소,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사노동의 수행방안으로 가족원간의 分擔, 가정기기 및 상품의 代替, 수행표준의 조정, 그리고 상황과 資源에 따른 주부자신의 생활시간 분배의 조정, 즉 여가

나 수면시간의 감소 등의 방안을 채택한다. 물론 非就業주부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시간제약은 느낄 수 있고 이들 역시 시간제약 해소를 위해 동일한 방안을 이용한다. 그런데 가정기기 및 상품의 대체, 즉 가정기기나 편의품의 구입, 서비스의 이용, 가정부나 파출부의 고용 등은 가계의 金錢的 資源에 의해 제한되므로 이를 통한 시간제약의 해소는 가계소득의 수준 그리고 특히 취업주부의 경우는 職業地位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이는 다른 가사노동의 수행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就業與否에 따라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의 차이를 파악하고 시간제약을 해소해 줄 수 있는 家事勞動의 수행방안에 있어서 주부의 취업여부와 직업지위에 따른 차이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理論的 考察

1. 主婦의 就業에 따른 時間制約 知覺

1) 時間制約의 概念

시간제약은 시간자원의 특성과 역할과중에 의해 유발된다. 즉 시간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객관적인 자원이지만 1일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축적될 수 없는 制限的인 자원이다. 또한 각 個人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절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한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이 과중하여 시간에 대한 요구가 큰 경우 사람들은 時間資源의 제한성 때문에 시간의 부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시간제약이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에너지와 시간의 총 요구가 너무커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특히 시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을 意味한다.

2) 主婦의 就業이 時間制約에 미치는 影響

주부가 취업을 하게 될 경우, 가정밖의 생산활동과 가정내의 가사노동 등 두가지 역할 모두를 수행해야 하므로 과중한 노동부담과 시간의 부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취업주부의 시간제약은 객관적인 시간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주부 스스로 바

쁘다거나 서둘러야 한다는 등의 느낌을 어느정도 지각하는가의 문제로 心理的인 느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느낌은 취업을 통한 두가지 역할수행에서 연유한 것이지만,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취업 자체에서 느끼는 시간제약이라기 보다는 취업으로 인해 제한받는 가정내 역할 즉 家事勞動時間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취업주부의 시간제약은 家父長的인 데올로기하의 性에 따른 역할분업과 가사노동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현재 부부간의 역할구조는 성차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단지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성차별이 내재적인 구분으로 변화하여 여성의 생산적 역할로의 진출은 경우에 따라-수입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여성이 직업적 역할과 가정내 역할의 二重役割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만-인정하되 그에 따른 남편의 가정내 역할에의 보충은 일어나지 않는 Adams의 역할구분 중 신전통주의 (Neo-traditionalism)에 해당된다(이연주 1984; 재인용)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가사노동은 그 代替의 한계성 때문에, 취업주부의 가사부담과 시간제약은 市場財貨나 서비스, 지불된 用役으로서의 대체를 통해 완화될 수는 있지만 완전한 해소는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現代社會로 접어들면서 정립된 새로운 아동관에 의해 자녀양육 부분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욕구수준의 증가로 가정내 표준의 상승과 가사노동의 정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김혜경 1985). 이와 더불어 가사노동의 영역 중 가정관리 활동시간-가족원 보살핌, 관리 및 구매시간-이 증가하는, 시간의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한경미 1987), 이러한 경향은 가사노동대체의 한계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제약을 지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2. 家事勞動의 遂行方案

취업주부는 취업으로 인한 時間制約을 경감시키기 위해 나름대로의 해소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해소방안에 대해 Strober와 Weinberg(1980)는 시간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假說的 전략 5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생산(household production)의 量과 質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본재 기기(capital equipment)로 대체하는 방법. 둘째, 가계생산의 양과 질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他人의 勞動力으로 대체하는 방법. 셋째, 가계생산시 자신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가계생산의 양을 줄이고 질을 낮추는 방법. 넷째, 自願奉仕나 地域活動에 분배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 다섯째, 여가 및(또는) 수면시간을 줄이는 방법.

이상의 전략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方案을 선정하였다. 1. 가족원간의 分擔, 2. 가정기기 및 상품의 代替, 3. 가사노동 수행표준의 調停, 4. 생활시간분배의 조정. 그런데 주부의 취업이라는 상황은 동일하더라도 취업주부의 職業地位에 따라 그 가정이 보유한 자원과 상황적 특성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취업여부만을 비교하는 것은 직업지위의 특성에 의한 상쇄효과로 인해 실제의 차이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직업지위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각 方案의 이용에 있어 주부의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1) 家族員間의 分擔

시간제약을 느끼는 주부는 가정내 人的資源의 활용, 즉 가족원간의 분담을 통해 시간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인적자원으로는 男便과 子女, 그리고 同居하는 시모나 친정모를 들 수 있다.

먼저 핵가족화의 추세에 따라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부각되는 남편의 경우 다른 변인보다 성에 따른 역할규범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 성역할관념론(sex-role ideology)에 의하면 부인의 就業時 남편의 가사분담은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부인의 노동력과 教育, 나아가 취업노동 참여와 같은 外的資源이 가족내의 내적 분배력을 결정하여 노동분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相對的

자원가설(relative resources hypothesis)에 의하면 부인의 취업에 따라 남편의 가사참여가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相反된 관점으로 조명되고 있다. 실증연구에서도 취업주부의 남편이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연구결과(송혜림 1988; Blood & Wolfe 1960; Scanzoni & Fox 1980; 김외숙·서창원 1986; 433 재인용)가 있는가 하면 부인의 취업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와 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연구결과(이정수 1984; 이연주 1984; Abdel-Ghany & Nickols 1983; Nickols & Fox 1983; Nickols & Metzner 1978; Sanik 1981)가 있다. 또한 취업주부의 직업지위에 따른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취업주부의 직업지위에 따라 有意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송혜림 1988)에 반해,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이연주 1984)가 있다. 따라서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는 주부의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dams의 役割區分論 중 신전통주의(이연주 1984)가 취업주부 가계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資本主義 경제체제로의 이전에 따라 性別에 따른 역할구분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며 여전히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기제로서 뿌리 깊숙히 내재해 있다는 점, 남편의 장시간의 근무 등의 분담가능 조건을 고려해 볼때 부인의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른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子女는 그 연령에 따라 가정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인적자원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가사노동의 양을 증가시키는 要求要因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이는 자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요인이 장자와 막내의 연령으로 나타난 이정수(1984; 123)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따라서 자녀의 가사노동분담정도 역시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실증 연구결과(이연주 1984; 이정수 1984; Nickols & Fox 1983; Peters & Halde-man 1987)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부의 취업은 가족원의 분담을 요구하게 되며 특히 非專門職의 경우는 자녀양육의 부담에서 어

느정도 벗어난 후 취업하게 되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노미혜 1986) 등을 고려해 볼때 비전문직 주부의 자녀는 가사노동을 분담해 줄 인적자원으로 기능하리라 여겨진다.

확대가족의 경우 제 3세대 동거인인 시모나 친정모로부터 가사노동에 대한 助力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 결과 다른 주부에 비해 專門職主婦가 확대가족인 경우가 많으며 다른 가족원보다 할머니의 가사노동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김은주 1979; 유영주 1977; 이연주 1984; 전옥경 1979) 전문직 주부의 경우에 할머니의 분담정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家庭器機 및 商品의 代替

産業資本主義의 지속적인 발달에 따라 상품생산 영역이 확대되면서, 종래 가정내에서 행해지던 가사노동 중 많은 부분이 산업노동을 통해 생산된 商品에 의해 대체되거나 경감되고 있다(이기영 1987). 이와 더불어 기술발전으로 인한 가정기기의 등장으로 가정내 가사작업이 單純化, 合理化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시간제약을 느끼는 취업주부에게 있어 가정기기의 이용이나 상품으로의 代替는 시간제약을 완화시켜 주는 하나의 전략적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商品이란 산업노동에 의해 생산된 산출물 중에서 가사노동을 대체해 줄 수 있는 편의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부의 가정내 가사노동역할의 일부를 대체해 줄 수 있는 家事代替用役-가정부나 파출부-까지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편의품, 서비스의 이용과 가사대체용역의 고용은 상이한 방식으로 가사노동을 대체하므로 商品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통칭하되 方案의 성격 및 이용정도에 관한 고찰에서는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家庭器機의 使用

가정기기의 사용은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가사노동의 수행을 유보 또는 촉진시키는 측면(이기영 1987)이 있는데, 이는 기술의 영향과 가사노동시간과의 관계에 관한 학자들간의 상이한 견해를 통해서도 알 수 있

다.

먼저 Cain(1984)은 기술적 변화가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킨 가장 큰 공헌요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가정기기를 보유한 가정과 보유하지 않은 가정간의 가사노동 시간을 비교한 Robinson(1980)의 연구에서는 다른 영향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Linder(1970)는 더 많은 가사용품과 가사관련기술(household technology)이 도입될 수록 그것을 획득, 유지, 수리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가사노동시간이 요구된다고(노미혜 1986; 재인용) 주장하고 있다. 한편 Tomas와 Zmorczech(1985)은 産業革命 동안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던 생산활동이 가정 밖의 市場體制로 이전되어 가정내 가사노동을 감소시킨 점, 특정한 가사과제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쉬워진 반면 과제수행이 더 빈번해진 점, 과제수행의 빈번함으로 기대되는 표준이 향상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기술의 영향을 일관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음을 주장한다.

실증연구에서도 주부의 취업이 가정기기의 소유 정도와 거의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Nickols & Fox 1983; Reilley 1982; Strober & Weinberg 1977, 1980)와 고급직·저급직·비취업주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연구결과(이용학 1985)등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2) 便宜品, 서비스의 利用

먼저 편의품의 경우 실증연구결과 주부의 취업과 편의품 소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Douglas 1976; Reilley 1982; Strober & Weinberg 1980)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주부·저급직주부·고급직주부로 구분하여 연구한 Shaninger & Allen(1981, 이용학 1985;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저급직주부가 더 선호하는 반면 이용학(1985)의 연구에서는 비취업주부보다 고급직주부가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의 이용정도에 관한 실증연구결과, 취업주부가계가 자녀양육서비스, 外食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llante & Foster 1984; Nickols & Fox 1983), 정연주·문숙재(1987)의 연구에서도 취업주부일때 외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

난 반면 Gobel과 Hennon(1982)의 연구에서는 취업여부에 따른 외식의 이용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3) 家事代替用役의 雇傭

주부의 역할의 일부를 대행함으로써 가정내 생산을 위한 人的資源으로 기능하는 가사대체용역-파출부나 가정부 등 가정고용인-의 고용은 취업주부의 시간제약을 줄여주는 方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부의 역할수행에 관한 실증연구(강신주 외 1968; 김은주 1979; 유영주 1977; 전옥경 1979)를 통해서도 가정고용인이 중요한 家事補助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계의 빈궁을 보완하기 위해 비공식부문의 低賃金勞動에 참여하는 비전문직 주부에게는 가정고용인의 고용이란 불가능한 것으로서 無償的 성격의 가사노동을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고용인의 고용정도는 직업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 家事勞動 수행표준의 調停

個別家庭은 가사노동의 양과 질 뿐만 아니라 가족원의 욕구충족 정도도 다를 것이며, 이는 각 가계의 자원 뿐만 아니라 가계에 내재한 目標, 價値, 標準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표준은 가계내에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사용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가사노동의 양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부가 遂行標準을 유연하게 설정하느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승인되거나 높이 평가되고 관례화된 표준을 엄격하게 지키느냐에 따라 주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양과 질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標準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Oakley(1974)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표준은 설정된 표준의 수준까지 수행해 냈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自我補償의 근거가 되며, 자신이 부여한 규칙과 원리의 객관화 과정을 통해 주부에게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性向을 지니므로 표준의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生活時間分配의 調停

전통적으로 시간사용은 두가지 영역-勞動과 餘暇-으로 이분화되어 왔는데 여기서의 여가는 生理的 활동시간과 가계생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Rice & Tucker, 1987) 개념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사용에 관한 통합적인 개념 모델을 제시한 Feldman과 Hornik(1981, Rice & Tucker 1987; 재인용)의 분류-노동시간, 생리적 활동시간, 가계생산, 여가시간, 이동시간(travel time)-를 토대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취업주부는 市場生産과 家計生産 모두에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생활시간 분배의 조정 특히 여가나 수면시간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수면·여가시간의 감소를 통해 부족한 가사노동시간을 보완해 주므로 시간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戰略的 方案이라 할 수 있으나,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이라기 보다는 結果論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先行研究에서 여가시간은 취업주부에 따라 2.6 시간 정도의 차이를(민경애·윤복자 1985) 보이며 취업시간이 여가시간(수면포함)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Nickols & Abdel-Ghany 1983; Nickols & Fox 1983) 취업 및 직업지위에 따라 여가·수면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III. 研究問題의 設定

주부의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른 시간제약의 지각정도와 가사노동 수행방안의 차이를 實證的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研究問題 1: 주부의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라 시간제약의 지각정도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가?

研究問題 2: 주부의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가족원간의 분담, 가정기기 및 상품대체, 가사노동 수행표준의 조정, 생활시간분배의 조정-은 차이가 있는가?

IV. 研究方法 및 節次

1. 尺度의 構成

1) 時間制約의 知覺尺度

시간제약의 지각척도는 心理的 시간제약의 지각척도와 가사노동영역별 시간제약의 지각척도를 하위영역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심리적 시간제약의 지각척도는 임정빈·정혜정(1986), Reilley(1982), Robinson(1977)의 연구를 참고로 해서 연구자가 작성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사노동영역별 시간제약의 지각척도는 한경미(1987), Walker와 Woods(1976)의 연구를 토대로 11개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형 척도로 질문되었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는 0.89, 0.85였다.

2) 家族員間의 分擔尺度

가족원간의 분담척도는 가사노동을 4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가족원-남편, 자녀, 동거하는 시모나 친정모-각각의 분담정도를 주부가 평가한 결과로 측정하였다.

3) 家庭器機 및 商品代替尺度

가정기기, 편의품 및 서비스의 이용정도척도는 이기영(1987), 이용학(1985), 정연주·문숙재(1987), Bellante & Foster(1984), Nickols & Fox(1983), Strober & Weinberg(1977, 1980)의 연구를 토대로 8개의 편의품, 4개의 서비스, 5개의 가정기기를 선정하여 각각의 이용정도를 3~4개 범주의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家事代替用役의 고용척도는 가정고용인의 조력정도를 가족원간의 분담척도와 같은 요령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4) 家事勞動 遂行標準의 尺度

송혜림(1988), Oakley(1974)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대체로 그렇다」에 1점을, 「대체로 아니다」에 0점을 주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는 0.64로 약간 낮은 신뢰를 보였다.

5) 睡眠·餘暇時間의 尺度

장명옥(1984)의 생활시간 분류와 이현주(1987)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수면·여가시간을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2. 調査對象 및 資料蒐集

본 연구는 적어도 막내자녀가 학령기 이하인 비취업, 전문직, 비전문직 주부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여기서 전문직·비전문직 주부집단은 이용학(1985)의 연구와 홍두승(1983)의 직업별 社會經濟的 지위척도를 토대로 구분하였는데 해당직업은 다음과 같다.

專門職-교수, 의사, 교사, 직업간호사, 약사
非專門職-외판원, 청소원, 파출부, 노점상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이었고 질문지는 비취업주부의 경우 연령과 가계소득을 고려하여 학교를 통해 배부되었고, 전문직·비전문직 주부는 그들을 접할 수 있는 직장을 통해,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은 주거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配部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며, 1989년 3월 13일에서 4월 6일에 걸친 本調査에서 총 75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는 512부였고, 최종 분석에는 374부가 사용되었다.

3. 資料의 分析方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을 통해 파악하였다. 주부의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른 시간제약의 지각정도와 각 가사노동 수행방안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一元分散分析과 Scheffé-test를 적용하였다. 통계는 서울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PSS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V. 結果 및 解釋

1. 就業與否 및 職業地位에 따른 時間制約 知覺程度

전반적인 시간제약 지각정도와 그 하위영역인 심리적 시간제약의 지각정도, 가사노동영역별 시

간제약의 지각정도가 주부의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一元分散分析과 Scheffé-test를 한 결과 표 1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시간제약의 지각정도는 비취업주부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전문직 주부이며 비전문직 주부가 시간제약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cheffé-test결과 비취업주부와 전문직·비전문직 주부간의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여부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위영역인 심리적 시간제약의 지각정도와 가사노동영역별 시간제약의 지각정도는 세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Scheffé-test결과 심리적 시간제약의 지각정도는 세 집단간의 차이가 有意味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사노동영역별 시간제약의 지각정도는 비취업주부와 두 취업주부 집단간의 차이만 유의미할 뿐 직업지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전문직주부는 전문직주부보다 심리적 시간제약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할 수 있다.

2. 主婦의 就業與否 및 職業地位에 따른 家事勞動 遂行方案의 差異

1) 家族員間의 分擔

먼저 총가족원의 분담정도는 표 2에서와 같이 비취업, 전문직, 비전문직주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Scheffé-test결과 비취업주부와 비전문직주부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남편, 자녀, 동거하는 할머니 각각의 분담정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男便의 가사노동 분담정도는 세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경제규모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내 노동분담에 있어서는 性差別主義가 지속되는 모순적 상황(Meissner et al 1975; Pleck 1985에서 재인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子女의 가사노동 분담정도는 표 2에서와 같이 전문직주부의 자녀가 가장 적게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으며 비전문직주부의 자녀가 가장 많이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낮은 진입장벽으로 비교적 재취업이 용이한 비전문

표 1.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른 시간제약 지각정도

		취업주부			F 값
		비취업주부	전문직주부	비전문직주부	
시간제약	평균	44.4	57.32	60.35	F = 79.04***
	빈도	(196)	(88)	(88)	
지각정도	scheffé	a	b	b	
	-test				
심리적	평균	23.43	30.29	32.75	F = 83.08***
	빈도	(196)	(89)	(89)	
시간제약	scheffé	a	b	c	
	-test				
가사노동	평균	21.02	27.05	27.67	F = 41.61***
	빈도	(196)	(88)	(88)	
영역별	scheffé	a	b	b	
	-test				

***P<.001

표 2.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른 가족원간의 분담

	총가족원의 분담정도		남편의 분담정도		자녀의 분담정도		할머니의 분담정도	
	평균	scheffé -test	평균	scheffé -test	평균	scheffé -test	평균	scheffé -test
비취업주부	20.03	a	8.63		6.74	a	4.65	a
전문직주부	21.26	ab	8.96		5.30	b	7.00	b
비전문직주부	21.87	b	8.95		8.08	c	4.97	a
F 값	F=4.13*		F=0.54		F=26.16***		F=24.78***	

*p<.05 ***P<.001

직의 특성에 의해 비전문직 취업주부는 어느정도 子女養育의 부담에서 벗어난 이후에 취업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비전문직주부의 자녀는 가사노동에 대한 要求要因이라기 보다는 분담의 人的資源으로 기능하는데서 연유한 것이다.

할머니의 분담정도 분석결과 다른 두 집단보다 전문직주부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家庭器機 및 商品代替

가정기기 및 상품-편의품, 서비스, 가사대체용역-의 이용은 所得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所得集團내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취업주부집단을 소득수준에 따라 양분하여 네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1) 家庭器機의 使用程度

가정기기의 사용정도에 대한 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소득이 높은 두 집단이 소득이 낮은 두 집단보다 가정기기의 사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所得에 따른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같은 소득집단내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집단내에서는 비전문직주부가 低所得의 비취업주부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가정기기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득이 높은 집단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평균점수로는 오히려 高

표 3. 주부의 가계소득 및 취업여부, 직업지위에 따른 가정기기의 사용

	가정기기의 사용정도	
	평균	scheffé-test
저소득비취업주부	13.18	a
비전문직 주부	11.35	b
고소득비취업주부	15.80	c
전문직 주부	15.28	c
F 값	F=45.83***	

***P<.001

所得의 비취업주부가 전문직주부보다 가정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中·高所得層에서 취업주부보다 비취업주부가 더 많은 가정기기를 소유한다는 이용학(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2) 便宜品の 利用程度

편의품으로 손질된 야채, 라면, 밀반찬, 즉석찌개거리, 냉동식품, 김치, 된장, 고추장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중에서 라면은 다른 편의품의 이용경향과 상이한 양상을 보여¹⁾ 구분하여 分析하였다.

먼저 편의품의 이용정도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低所得주부집단과 高所得주부집단이 취업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Scheffé-test결과 저소득 주부집단내에서는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고소

주 1) 라면을 제외한 편의품의 이용정도와 라면의 이용정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적용한 결과 상관계수가 -0.007로 나타났다.

표 4. 주부의 가계소득 및 취업여부, 직업지위에 따른 편의품, 라면의 사용

	편의품 이용정도		라면이용정도	
	평균	scheffé -test	평균	scheffé -test
저소득비취업주부	10.86	ab	2.36	a
비전문직 주부	10.14	ab	2.66	b
고소득비취업주부	9.82	a	2.22	ac
전문직 주부	11.31	b	2.02	c
F 값	F=5.90***		F=15.11***	

***P<.001

득 주부집단내에서는 취업주부 즉 전문직주부가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취업의 효과가 相互作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취업하는 비전문직주부의 경우 취업에 의한 시간제약을 市場財貨로 대체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인데 반해, 전문직주부의 경우는 부족한 가사노동시간을 편의품 이용으로 보완하려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고소득의 비취업주부가 다른 세 집단보다 가장 적게 편의품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선정된 편의품의 종류가 食品産業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상품이 아니라 이전까지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것을 대체해 주는 特性을 지녔기 때문이다. 또한 고소득층에서는 가정부의 고용, 생활표준의 향상, 육구의 세분화 등의 영향으로(이기영 1987) 편의품을 이용하기 보다는 가정에서 직접 가사를 처리하려는 경향에서 起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라면의 이용정도는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집단이 더 많이 이용하며, 같은 소득집단내의 취업에 따른 차이는 저소득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비전문직주부가 라면이용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食事代用 및 자녀들의 간식으로 食생활영역에서 가장 급속하고 광범위한 대체, 이용경향을 보이는 라면이 다른 상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반면 소득이 높은 전문직, 비취업주부의 가계는 라

면 이외에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3) 서비스의 利用程度

서비스의 이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衣生活領域과 食生活領域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 5를 보면 食생활영역은 네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거나 衣생활영역은 네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食생활영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두 집단이 낮은 두 집단보다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며, 같은 소득집단내에서는 소득이 낮은 두 집단간의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취업의 효과가 相互作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家事代替用役의 雇傭程度

표 6을 보면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며 전문직주부가 다른 세 집단보다 가장 많이 가정부나 파출부에게 가사노동을 위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가 취업한 경우 전문직에 종사할 수록 가정부나 파출부를 더 많이 고용한다는 이연주(1984), 전옥경(197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3) 家事勞動 遂行標準의 調停

주부의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른 家事勞動 遂行標準의 程度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Scheffé-test결과 전문직, 비전문직주부에 비해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수행표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주부는 직

표 5. 주부의 가계소득 및 취업여부, 직업지위에 따른 서비스의 이용

	食생활 영역		衣생활 영역	
	평균	scheffé -test	평균	scheffé -test
저소득비취업주부	4.58	a	3.75	
비전문직 주부	3.48	b	3.72	
고소득비취업주부	5.23	c	3.87	
전문직 주부	5.10	c	3.94	
F 값	F=34.68***		F=1.10	

***P<.001

표 6. 주부의 가계소득 및 취업여부, 직업지위에 따른 가정고용인의 조력정도

	가정고용인의 조력정도	
	평균	scheffé-test
저소득비취업주부	4.25	a
비전문직 주부	4.00	a
고소득비취업주부	4.85	a
전문직 주부	7.70	b
F 값	F=69.00***	

***P<.001

표 7.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른 가사노동 수행 표준

	가사노동 수행표준 정도	
	평균	scheffé-test
비취업 주부	8.44	a
전문직 주부	6.55	b
비전문직 주부	6.30	b
F 값	F=27.59***	

***P<.001

업지위와 관계없이 가사노동의 수행표준을 낮춤으로써 취업에 의한 시간제약을 경감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生活時間分配의 調停

생활시간 분배의 조정으로 여가와 수면시간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먼저 수면시간에 관해 살펴보면, 표 8에서와 같이 비취업주부는 하루 평균 7시간 35분 정도, 전문직주부는 7시간 25분 정도, 비전문직주부는 약 7시간 정도로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test결과 비전문직주부집단과 다른 두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비전문직주부의 수면시간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여가시간은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루 평균 전문직주부는 2시간 36분 정도, 비전문직주부는 3시간 정도, 비취업주부는 4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Scheffé-test결과 취업여부에 따른 차

표 8.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른 수면, 여가시간

	수면시간		여가시간	
	평균	scheffé-test	평균	scheffé-test
비취업 주부	7시간35분	a	4시간3분	a
전문직 주부	7시간25분	a	2시간36분	b
비전문직주부	6시간59분	b	3시간1분	b
F 값	F=8.84***		F=31.15***	

***P<.001

이 즉 비취업주부와 전문직, 비전문직주부간의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취업주부에 비해 취업주부-전문직, 비전문직주부-의 여가시간이 적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就業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VI. 結 論

研究問題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다.

1) 시간제약 지각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비취업주부에 비해 취업주부가 훨씬 더 많은 시간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既婚女性の 취업이 시간제약의 중요한 原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영역의 분석을 통해 비전문직주부가 전문직주부보다 心理的 시간제약의 지각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전문직주부가 바빠다거나 서둘러야 한다는 등의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시간제약을 완화시켜주는 家事勞動 수행방안의 이용은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비취업주부, 전문직주부, 비전문직주부의 가정내 가사노동 수행양식은 다른 類型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전문직주부의 경우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擴大家族의 경향을 띠면서 다른 일차적 가족원보다 시모나 친정모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가사대체용역의 고용정도도 가장 높아 他人에게 가사노동을 위임하여 시간제약을 줄이는 경향이 높

은 편이다. 이와 함께 라면을 제외한 편의품의 이용을 통해 가사노동을 市場生産物로 대체하는 경향도 높으며, 비취업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의 수행 표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여가시간을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비전문직주부는 다른 두 집단보다 子女의 가사 참여 정도가 가장 높으며, 편의품 중 價格이 저렴한 라면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부족한 시간의 보완을 위해 가사노동의 標準을 낮출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과 수면시간까지도 줄이는 양상을 보여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비전문직주부는 편의품(라면 제외), 서비스, 가정기기, 가사대체용역의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이용정도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 비전문직주부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취업을 하기 때문에 就業에 의한 부족한 가사노동시간을 재화로 대체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 無償的 성격을 갖는 家事勞動을 직접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사노동의 수행방안은 나름대로 시간제약을 보완해 주는 방안적 성격을 지니지만 이와 아울러 각 방안은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취업여성의 시간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개선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여겨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편의 가사참여는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이는 家父長的 體制하의 성별분업관념이 여전히 남녀의 역할을 구분짓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의식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家事勞動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특화 내지 국한되어 있으며 장시간의 근무 등 가사분담을 힘들게 하는 제반 환경등에 의해서도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쉽게 늘어나지 못하는 제한점을 지닌다.

편의품, 서비스, 가정기기 및 가사대체용역의 이용은 경제적 자원에 의해 제한되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가정기기는 이러한 한계점 이외에도 勞動力은 절감시켜 주지만, 가사노동시간을 줄여주

지는 못하는(Gross 등 1980) 특성이 있는데, 이는 가정기기 자체의 특성보다는 標準의 上昇에 따른 頻度 즉 횟수의 증가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Tomas & Zmoroczec 1985) 표준의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가정기기의 이용은 시간절약에 큰 효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여겨진다.

현편 주부에게 있어 標準은 자기 스스로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주부라는 직업을 인정받고 그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높은 標準의 유지가 주부에게는 만족의 원천이 된다(Oakely 1974). 그러나 관례화된 표준을 지키지 못하는 주부는 심리적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家父長的 이데올로기에 의한 女性的 家庭指向性(fenine domesticity)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부는 스스로 부여한 표준의 객관화 과정을 통해 가사노동에 대한 주부 자신의 自律性을 박탈당하게 되고 다시 의무로 부여되는(Oakley 1974)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기혼여성이 就業을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주부이므로 비취업주부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갖게 되며 제한된 자율성에 의해 標準의 조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시간 분배의 조정 특히 여가나 수면시간의 감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시간제약에 의한 결과론적 현상으로서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할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1) 강신주·서영숙·최보가 : 생활시간관리의 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6 : 1968
- 2) 김외숙·서창원 :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5, 1986
- 3) 김은주 : 도시부인의 직업 및 가정생활에 대한 일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4) 김혜경 : 가사노동의 이론에 관한 연구(여성해방론에서의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5) 노미혜외 3인 : 여성의 취업실태조사-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86
- 6) 서창원 :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7) 송혜림 :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8) 유영주 :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수행상의 문제-서울시 여교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가정대 논문집 2 : 1977
- 9) 윤복자 :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13(2) : 1976
- 10) 윤복자·민경애 :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 1985
- 11) 이기영 :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12) 이연주 :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 1984
- 13) 이용학 :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14) 이정수 :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 1984
- 15) 이현주 : 주부의 여가활동유형에 관한 연구. 동덕가정학회지 4 : 1987
- 16) 임정빈 :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 1981
- 17) 임정빈·정혜정 :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 1986
- 18) 장명옥 : 가정관리학. 서울 : 교문사, 1984
- 19) 전옥경 : 취업여성 가족과 비취업여성 가족의 가사역할 분담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20) 정연주·문숙재 : 도시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식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 1987
- 21) 한경미 :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광주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22) 홍두승 :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서울 : 범문사, 1983
- 23) Abdel-Gany M, SY Nickols : *Husband/Wife differential in household work time : The Case of Dual-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3) : 1983
- 24) Bellante D, AC Foster :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 Sep, 1984
- 25) Cain DG : *Women and work : Trends in time spent in housework.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and development of economics, April, 1984*
- 26) Douglas : *Cross-National comparisons and consumer stereotypes : A case study of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in the U.S. and Fra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 : 1976
- 27) Gobel KP, CB Hennon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wife's employment, Status stage in the family life cycle, Meal preparation time and expenditure for meals away from hom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82
- 28) Gross IH, EW Crandall MM Knoll :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0*
- 29) Hafstrom JL, VR Schram : *Housework time of wives : Pressure, facilitators, constra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3) : 1983
- 30) Nickols SY, EJ Metzen :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2) : Nov, 1978
- 31) Nickols SY, EJ Metzen : *Impact of wives 'employment upon husbands' housework. Journal of family issues* 3(2) : 1982
- 32) Nickols SY, KD Fox : *Buying time and saving time :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 Sep, 19

- 33) Nickols SY, M Abdel-Ghany :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 Dec, 1983
- 34) Oakley A : *The sociology of housework. New York : Pantheon Books, 1974*
- 35) Peters JM, VA Haldman : *Time used for household work. Journal of family issues* 8(2) : 1987
- 36) Pleck JH : *Working wives/Working husband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5*
- 37) Reilly MD :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 (Mar.)1982
- 38) Rice AS, SM Tucker : *Family life management.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6*
- 39) Robinson JP : *How Americans use time :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of everyday behavior, New York : Praeger, 1977*
- 40) Strober MH, CB Weinberg : *Working wives and major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 : (Dec.)1977
- 41) Strober MH, CB Weinberg :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 (Mar.)1980
- 42) Thomas G, C Zmroczek : *Household technology : The liberation of women from the home? Family and economy in modern society. the macmillan press, LTD, 1985*
- 43) Walker KE, ME Woods : *Time use :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76*